

새인물 보다 경륜... '올드보이' 전성시대

이해찬·김병준 등 노무현정부 핵심인사 정치권 전면 부각 바른미래 전대도 손학규 대세론...여야 원활한 소통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로 7선의 이해찬 의원을 선출하면서 노무현정부 핵심 인사들이 여야 정치권 전면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에서도 당권 도전에 나선 손학규 상임고문인 '대세론'을 형성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올드보이' 전성시대가 된 듯한 분위기다.

우선, 이 신임대표의 탄생으로 민주당·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 대표는 모두 '노무현정부 사람들'로 채워졌다.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의 '소방수' 역할을 맡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달 5일 평화당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정동영 대표는 이 대표와 함께 노무현정부에서 함께 일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4~2006년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2009년 8월 발족한 '노무현 대통령 추모기념사업회' 위원장을 맡아 2009년 9월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출범을 이끌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04~2006년 대통령 정책실장을 맡았고 이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정 대표는 노무현정부에서 통일부장관(2004~2005년)을 지냈으며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당의장을 했다. 10여년 전 노무현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했던 이들 3인은 이제 각기 다른 당에서 서로 경쟁해야 하는 위치가 됐다.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 나선 손학규 상임고문도 이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온 정치인이다. 이 대표와 정 대표, 손 고문은

2007년에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사이다. 당시 경선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정 대표에게 면박을 준 일이 있다. 이 대표가 정 대표를 향해 비판적 발언을 하자 정 대표는 "이해찬 후보와 저는 서울대 재학 시절 동기"라고 말하며 말을 끊었고 이에 이 대표는 "아, 친구 이야기 그만 좀 하세요"라고 버럭 화를 냈다. 둘은 서울대 72학번 동기다. 결국 정 대표는 이 대표와 손 고문을 누르고 대선후보가 됐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패했다. 이 대표는 손 고문과도 악연이 있다. 이 대표는 2008년 1월 대통합민주신당에 손학규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 "한나라당 출신이 당대표를 맡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탈당했다.

이처럼 10여년 전 정치권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이 다시 여의도 정치에 전면 부각하자 여야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YTN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과 정 대표에 대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대화하는 데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선 비결 중 하나로 '이해찬 효과'를 꼽으며 "(민주당에서) 이해찬 후보가 대표 (선거에) 출마하고 (바른미래당에선) 손학규 대표도 나온다고 하니 말 상대할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가 들렸다"고 설명했다.

물론 올드보이들의 귀환에 "세대교체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경륜과 경험의 리더십이 발휘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협치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경륜의 지도자들이 나오므로써 보다 원활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 재벌개혁 적극 나서야”

정동영 평화당 대표 간담회...“中企 좋은 일자리가 핵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23일 한국지방신문협회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정부가 개혁의 진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생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같은 경제 노선으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경제는 심리가 70%인데 청와대와 정부가 엇갈리는 소리를 내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엇박자를 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99%가 중소기업이고, 일자리의 88%는 중소기업인 ‘9988’ 체제이지만 청년들은 구직난을,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관장한 일자리로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단기 후려치기, 기술 탈취, 보복 단절 등의 행태를 버리지 못하는 재벌 개혁에 나서야 하는데 관료들로는 어렵다는 점에서 청와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IT 정보 기술, BT 바이오기술, CT 문화융합기술, ET 에너지기술, NT 나노기술, ST 우주항공기술 등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분야에 정책과 자원을 집중, 혁신 성장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제정책 과거 회귀 안돼...소득주도성장 속도 낼 것”

장하성 정책실장 기자간담회...“저소득층 정책 보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

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이제 시작단계다. 문재인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실행에 시간이 걸리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이 모든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라 하면 다시 과거의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 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투자 중심 성장정책만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고 양극화 고통을 가져온 과거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상황에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 취업자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하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는데,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저소득층 소득을 줄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뭔지 밝혀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 굳히기냐 뒤집기냐

바른미래 전대 D-6... 대세론 속 1인2표제 변수

바른미래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26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지도부에 들어갈 3명이 누가 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선 무대에 오른 하태경·정운천·김영환·손학규·이준석·권은희(기호순) 후보 중 여성 최고위원 몫을 제외하고 3명이 지도부에 들어간다.

당 안팎에서는 ‘손학규 대세론’이 형성되면서 이를 뒤집을 만한 반전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1인2표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동안 후보들은 사실상의 러닝메이트를 이뤄 선거운동을 해왔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태경·김영환, 이준석·권은희 후보 등이 짝을 이뤄 선거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 중 당내 정치적 중량감이 가장 큰 손학규 후보는 바른미래당 출신이자 호남이 지역구인 정운천 의원과 짝을 이뤘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함께 손 후보가 화합 후보 차원에서 뚜렷한 러닝메이트를 두려 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당 관계자는 “1인2표제의 ‘짜짓기 투표’가 반드시 성패를 가르는 않을 것

이라며 “마지막으로 갈수록 특정 후보의 적극 지지층은 경쟁후보를 절대로 찍지 않는 등 고지방정식이 복잡하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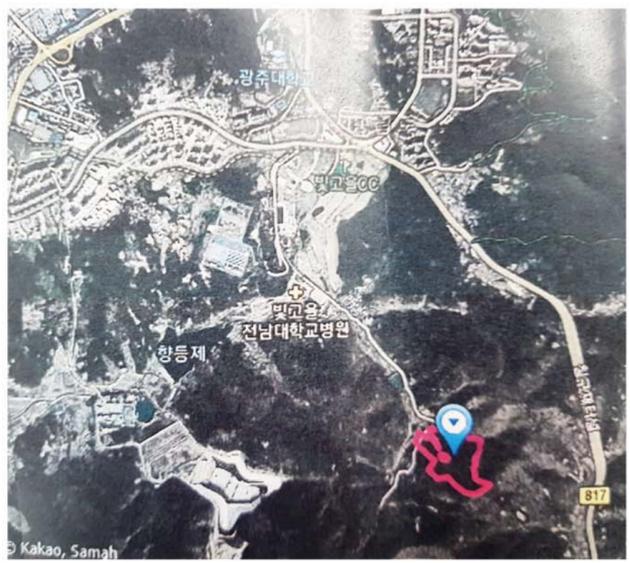
그동안 6명 당권 주자들의 득표전은 사실상 TV토론에 집중됐다. 지난 14일 지상파 3사 방송토론을 시작으로 부산·충청·호남 등 전국을 돌며 권역별 TV토론회를 했고 27일에도 TV토론이 예정됐다. 6·13 지방선거 후 지역위원장들의 입기가 만료되면서 현장에서 당 조직을 동원해 직접 당원들과 소통하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투표는 오는 31일 책임당원(50%)과 일반당원(25%)을 대상으로 시작해 전당대회는 다음달 2일까지 ARS 조사로 진행된다. 나머지 25% 비중인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오는 30~31일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전대 후 당내 화학적 결합이 중요하고, 이 힘을 받아서 선거구제와 정계개편까지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잘 헤쳐나갈 후보에 당원들의 마음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